

#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문화자원 분류체계 연구\*

##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cheme of Cultural Resource in ACIA

이 명 규 (Myoung-Gyu Lee)\*\*

### 목 차

- |                   |                      |
|-------------------|----------------------|
| 1. 서론             | 3.2 UNESCO 문화지표      |
| 1.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3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콘텐츠목차 |
| 1.2 연구 방법         | 3.4 민속아카이브 분류검색      |
| 1.3 선행 연구         | 3.5 분류체계 비교분석        |
| 2. 문화자원과 아시아문화정보원 | 4.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분류체계(안) |
| 2.1 문화자원          | 4.1 분류체계의 전개원칙과 방법   |
| 2.2 아시아문화정보원      | 4.2 문화자원의 분류체계(안)    |
| 3. 문화자원관련 분류체계    | 5. 결론                |
| 3.1 HRAF 분류체계     |                      |

### 초 록

이 연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정보원의 수집대상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를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목적과 수집정책 방향을 알아보고 문화자원의 특성과 범주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HRAF 분류체계, UNESCO 문화지표, 민속아카이브의 분류검색,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콘텐츠목차 등 4개의 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아시아정보원의 문화자원 분류체계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분류체계의 주제 전개는 문화적, 사회적, 자연적 영역 순으로 전개하였고, 주류는 16개의 항목으로 설정되었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plan of classification scheme to efficiently manage the collected cultural resource in Asian Culture Information Agency (ACIA) of Asian Culture Complex. The characteristic and category of the cultural resources are identified after studying objectives and acquisition policies of ACIA. This paper in here compares classification schemes such as HRAF scheme, UNESCO cultural framework, Folklore Archive scheme, and classification scheme of Academy of Korean Studies. On the basis of it, this study proposes the principle and criterion of the new classification scheme in ACIA. The new classification scheme is classified as the cultural, social, and natural area in sequence. The number of main classes is set up 16 items.

키워드: 문화, 문화자원, 분류체계, 문화자원 분류체계, 아시아문화정보원  
Culture, Cultural Resource, Classification Scheme, Classification Scheme of Cultural Resource, Asian Culture Information Agency

\* 이 논문은 2013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gyulee@jnu.ac.kr)

논문접수일자: 2015년 1월 26일 최초심사일자: 2015년 2월 9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2월 2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1): 319-340, 2015.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1.319>)

## 1. 서론

### 1.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2003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종합문화복합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2004년 광주광역시에 이 전당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당 설립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주도하였으며, 2015년 9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이 문화전당에 들어설 시설은 크게 5개로 구분된다. 아시아예술극장과 문화창조원, 민주평화교류원, 어린이문화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등이다. 아시아예술극장은 대극장과 소극장을 만들어 아시아 공연예술의 제작, 실연, 유통이 이루어지는 복합예술극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문화창조원은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창작하는 시설과 이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민주평화교류원은 민주인권평화 기념관을 조성하여 아시아 문화교류 사업을 맡아 운영하는 곳이다. 어린이문화원은 어린이 체험 전시관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감성을 함양하는데 활용되는 공간이다. 그리고 아시아문화정보원은 아시아 문화의 지역별, 주제별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원천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이와 같이 아시아문화전당은 5개의 부서로 구분되어 운영되는데 이 중에서 아시아 지역의 다양하고 많은 문화예술자원을 수집·정리하여 제공하는 아시아문화정보원이 타 부서의 역

할을 극대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오래전부터 아시아문화정보원은 문화자원 수집에 많은 지원을 해왔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의 문화자원이 상당량 수집되었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서 수집한 많은 문화자원이 수장고에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보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당의 개관을 앞두고 계속되는 문화자원의 수집과 이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리 방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자원의 형식이나 매체가 다양하고, 그 가치나 희소성 때문에 보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며 문화자원의 수집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이 문화자원에 대한 분류체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취지에서 아시아문화정보원에 있는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편성을 갖는 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자원의 분류체계(안)을 전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자원의 합리적인 분류체계(안)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자원에 범주와 그 내용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 분류체계(안)이 활용하는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목적과 수집대상의 문화자원의 특성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선 문헌연구로 각종 문화자원관련 문헌을 통해 문화자원의 정의와 범주를 분석하여 살펴봄으로써 문화자원의 분류체계(안)을

전개를 위한 토대로 삼는다.

둘째, 현재 실제적으로 문화자원관련의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외국의 HRAF, UNESCO의 문화지표, 우리나라의 향토문화전자대전, 민속아카이브의 분류체계 등을 대상으로 문화자원분야의 전개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분류체계(안)의 기초자료로 삼는다.

셋째, 문헌연구와 실체사레연구를 통해서 조사분석된 문화자원관련 주제를 바탕으로 적용의 실용성을 갖는 문화자원의 주류 분류체계(안)를 전개한다.

### 1.3 선행 연구

기존의 문헌분류표를 개선하거나 확장하려는 연구는 주로 해당 주제 분야의 학문체계 분석과 함께 전문 문헌분류표를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분류체계를 전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특정 주제 분야에 대한 기존의 문헌분류 체계를 개선한 연구는 컴퓨터과학분야(여지숙 외 2008), 약학분야(정옥경, 이장익, 최정희 2013), 한식분야(정연경, 최윤경 2011), 식물학(김정현 2008) 등이 있다. 이는 특정 주제분야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KDC, DDC 등의 분류 전개를 개선하는 연구로 볼 수 있다.

또한, 주제가 아닌 자료형태나 이용대상을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연구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는데, 이 연구로는 이창수(2007)의 지도자료 분류의 특성 연구가 있고 문지현(2008)의 어린이 도서 분류법 개발에 관한 연구가 있다. 지도자료 분류표의 적용은 지역구분표의 통합과 세분화, 주제구분표의 적용을 통해 지도자료를 분

류하는 분류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어린이도서 분류표 개발은 국내외 어린이 도서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분류표를 조사 분석하여 분류법 적용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헌분류의 개선은 기존의 분류체계에 해당 주제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에 바탕을 두며 이를 전개하는데 학문적 논리성을 가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시아문화정보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화자원 역시 문헌분류의 배경과 같이 실용성을 높이는데 우선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문화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그러하듯이 문화자원의 분류체계 또한 그것이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문화의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분류체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작업은 실로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내의 아시아문화정보원에서 수집하는 아시아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문화관련 지표나 분류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중에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문화자원 분류체계에 대한 글을 살펴보고자 한다.

엄소연(2014)은 “아시아문화정보원 조형상징·예술영역 내용분석”을 통해 정보원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형상징예술 영역에 대한 분류체계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는 정보원의 자원 수집대상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종합적으로 분류대상과 범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산화를 통한 관리 및 효용화를 분류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2013)에서 발행한 『업무매뉴얼』에는 분류체계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나 분류의 원칙이나 방식만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분류체계에 대해서는 표기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문화정보원의 성격과 유사한 기관의 문화분류체계를 연구한 선행의 글을 살펴보면, 2001년에 강화군, 성남시, 문경시, 장성군 등의 4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11월에 표준분류체계 정립을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어 지역문화의 분류체계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2003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사업이 시작되었다.

정경란(2013)은 지역문화의 분류체계가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나 범용적인 표준분류체계가 수립되지 않음을 알고 “지역문화의 표준분류체계 연구”를 통해 지역문화의 범용적인 표준분류체계 시안을 제시하였다.

조현성(2005)은 『문화지표체계 개선: 2005 문화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의 수립, 집행, 성과 측정에 지표가 되는 문화지표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UNESCO의 문화통계 틀을 조정하여 문화 환경에 조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해 활용되는 HRAF 분류체계라든지 각 민속박물관에서 적용하는 각각의 분류체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요소들을 참조하여 정보원에 적합한 분류 체계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문화자원과 아시아문화정보원

### 2.1 문화자원

문화에 대한 정의는 매우 복잡하고 폭 넓은 개념이라 확립적으로 기술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문화기본법 제3조)이다. UNESCO는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에서 “문화는 한 사회 또는 한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학, 생활양식, 공동생활, 가치관, 전통, 신념 등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인 특징이다”고 발표하였다. 즉 인간의 행위나 신념, 가치 등 인간의 모든 생활양식과 상징체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인간에 의해 창조, 습득, 전승되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의 포괄적 정의에 따라 사람들이 사회공동체로서 의식을 갖는 일정한 지역사회를 향토라 말하며 그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유·무형의 지역적 내지 전통적 소재를 향토적 소재로 정의도 한다(황중환, 박진서 2004). 따라서 향토는 동질적인 자연 및 문화환경적 특징을 가진 지구로 정의된다(이영진 2008).

인간이 일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착하여 사회를 이루고 역사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형성된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향토문화(한국학중앙연구원 2004)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의 터전에서 물질적·비물질적 실체로써 인간생활 및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유·무형의 총체를 향토자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12)이라 한다. 이는 문화의

〈표 1〉 문화자원의 범위 유형

영역	세부영역	내용
문화적 영역	역사문화자원	유·무형 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전시, 공연, 공연활동(판소리, 연극 등)
	생활문화자원	지역문화활동
사회적 영역	사회적 자원	경제활동자원, 축제 및 행사, 지역인프라자원, 이미지자원
자연적 영역	자연적 자원	자연·경관자원, 생태자원, 환경(기후)자원

정의에 따라 나타나는 산물로 볼 수 있으며 문화자원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자원은 인간 활동의 증거물이다. 즉 인류가 생활하면서 만들어낸 산물이며 그 흔적들이다. 이러한 문화자원의 범위(오재환 2009)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온 전통 및 역사문화영역과 공연, 전시, 문학 등 미학적인 영역,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일상생활 영역 등이다. 이를 문화자원의 자원 내용에 따른 분류 유형(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20)으로 구분하여 보면, 자연적 자원, 문화적 자원, 사회적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문화적 자원은 유형과 무형문화자원을 포함하는 역사문화자원과 전시, 공연, 공연활동(판소리, 연극 등)을 담은 예술문화자원, 지역문화활동을 의미하는 생활문화자원 등으로 범주를 구분하고 있다. 문화자원의 범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와 같이 인간이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양식과 상징체계를 문화라 하고, 이 문화의 산물을 문화자원이라고 하며, 이를 크게 문화적 영역, 사회적 영역, 자연적 영역 등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 2.2 아시아문화정보원

아시아문화정보원은 아시아 문화자원의 수

집, 분류, 보존 및 이를 통한 산업적 활용을 연계하고 아시아 문화에 관한 기획연구, 문화기획전문가 및 인력양성의 목적을 가지고 아시아 문화연구소, 아시아 문화자원센터, 아시아 문화아카데미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아시아 문화자원센터의 기능은 아시아 출판문화 지원 및 보존, 아시아 문화자원 네트워크 사업, 문화자원 지역교류 사업 등이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아시아문화정보원에서 조사·연구하여 수집한 아시아문화자원의 대상은 크게 아시아문화예술의 창조·변환 연구와 문화예술의 사회문화적 배경 연구 등 2가지 부문이었다. 이를 더 세분화하여 보면 아시아문화예술의 창조·변환 연구 부문에 스토리, 조형상징·예술, 의례·공연예술 등 3가지로 구분하였고, 문화예술의 사회문화적 배경 연구부문에서는 의·식·주와 이주·정착 등 2가지로 구분하였다. 종합해보면 아시아문화정보원에서 아시아 문화자원의 수집 대상 범주는 스토리, 조형상징·예술, 의례·공연예술, 의·식·주, 이주·정착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그런데 아시아문화정보원에서 정한 분류대상과 범주에는 몇 가지 재검토할 사항이 있다.

첫째, 문화는 인간의 생활양식과 상징체계를

〈표 2〉 아시아문화정보원 역할과 기능

역 할	기 능	문화자원 수집대상	
아시아 문화연구소	- 아시아전승지식사전 편차 - 아시아문화지도 제작 - 국제아시아문화워크숍 개최		
아시아 문화자원센터	- 아시아출판문화 지원 및 보존 - 아시아문화자원 네트워크 사업 - 문화자원 지역교류 사업	- 스토리 - 조형상징·예술 - 의례·공연예술	- 의·식·주 - 이주·정착
아시아 문화아카데미	- 총괄적 문화기획자, 경영자 양성기관 - 시민문화아카데미 운영		

기반으로 표현된 유·무형의 산물과 복합물이 라고 볼 때, 아시아문화정보원이 설정한 5가지 범주는 가시적 표현물의 유형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고 지나치게 크게 설정되어 있다.

둘째, 문화자원을 내적 텍스트와 외부적 맥락의 통합체로 규정하여 자칫 원형보다 변형에 치중하거나 문화자원 간에 편중될 우려가 있다.

셋째, 아시아 지역, 민족, 개인 등을 범주화 할 경우 지리, 민족, 인종, 언어 등의 구분을 고려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이 재고되어 정보원에 정리될 문화자원의 분류체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분류 체계는 분류의 기준으로 추출된 특징이나 식별점의 분류원리가 정해지고 이 원리가 모든 범주에 적용되어 계층을 형성하고 배열되는 체계표 자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활용하는 분류체계는 주제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하는 것이고, 기록관에서 활용하는 분류체계는 기능 및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문화자원을 수집·정리하는 아시아문화정보원에서는 도서관과 기록관의 분

류체계 개념을 적용하여 “문화자원 분류는 시간·공간·유형 등을 중심으로 하여 분류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2010, 419)고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문화정보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이 기관에서 수집하는 문화자원의 범주는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표 1〉에서 제시한 유형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주제기준의 분류, 기능/업무 기준의 분류, 시·공간을 수용한 귀납·연역 분류의 방법을 동원한 포괄적인 분류체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 3. 문화자원관련 분류체계

앞에서 살펴본 문화자원의 정의와 유형,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분류체계 지침 등을 고려하여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분류체계는 논리성보다는 분류표 적용의 실용성에 우선의 기준을 두었다. 이 분류체계 구성에 도움이 되는 기존의 분류체계로는 HRAF 분류, UNESCO의 문화지표체계, 한국향토문화표준분류체계, 국립민속박물관

분류체계 등이 있다. 이상의 4개 분류체계를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 3.1 HRAF 분류체계

1930년대에 미국 예일대학의 인간관계연구소(Institute of Human Relation)에서 수집한 세계의 모든 문화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주제 분류하여 항목별로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한 문서가 HRAF(Human Relation Area Files)이다. HRAF는 민족지(ethnography)와 고고학(archaeology)분야에서 세계 문화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첨가하고 있다. 이 Files은 현존하는 문화자료집 중에서 가장 방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또 내용이 범주적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 문화에 대한 비교연구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HRAF 자료는 문화로 배열한다. 특정 문화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텍스트는 모아지고, 각 문화는 OWC(the Outline of World Cultures), OCM(the Outline of Cultural Materials)의 기준에 따라 알파벳 문자와 숫자로 표기된다. 즉 세계의 모든 문화는 지리적으로 영역을 나누고 주제로 분류된다.

먼저, 지리적으로 영역을 구분한 OWC(the Outline of World Cultures, 6th ed. 1983)를 살

펴보면, 세계를 8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알파벳 코드를 사용하여 아시아는 A, 유럽은 E, 아프리카는 F, 중동 지역은 M, 북미 지역은 N, 오세아니아는 O, 러시아 지역은 R, 그리고 남미 지역은 S 등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8개의 각 영역에서 더 구체적인 지역은 그 다음의 알파벳을 부여하여 하위 지역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면 SC는 남미의 콜럼비아이다. 그리고 더 세부적인 하위 지역의 단위는 숫자가 부여된다. 예를 들면 FL12는 아프리카 마사이족이다. 8개의 영역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그리고 주제에 따라 항목을 나눈 OCM(the Outline of Cultural Materials)을 살펴보면, 세계의 문화 특성에 따라 주제 범주를 정하여 세 자리 숫자 코드를 사용하는데 첫 두 자리는 대분류에 해당하는 주제를 부여하고 마지막 세 번째 자리 숫자는 대분류의 주제를 세분화하는 중분류에 해당한다. 이 OCM은 000(materials not relevant)과 함께 100(orientation)에서부터 890(gender roles and issues)까지 80개의 주제를 배정하였다. 그리고 각 대분류 속에 9개의 세밀한 중분류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590(family)은 591(residence), 592(household), 593(family relationships), 594(nuclear family) 등과 같이 세분류를 한다. OCM 분류체계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3> OWC에 따라 구분한 지리적 영역과 코드

지리적 영역	코드	지리적 영역	코드
Asia	A	North America	N
Europe	E	Oceania	O
Africa	F	Russia(구 소련연방 지역 문화)	R
Middle East(Africa의 무슬림사회 포함)	M	South America	S

〈표 4〉 OCM 분류체계

코드	주제	코드	주제	코드	주제
000	material not relevant	370	energy and power	630	territorial organization
100	orientation	380	chemical industries	640	government institutions
110	information sources	390	capital goods industries	650	government activities
120	research methods	400	machines	660	political behavior
130	geography	410	tools and appliances	670	law
140	human biology	420	property	680	offenses and sanctions
150	behavior processes & personality	430	exchange and transfers	690	justice
160	demography	440	marketing	700	armed forces
170	history & culture change	450	finance	710	military technology
180	total culture	460	labor	720	war
190	language	470	business & industrial organization	730	social problems
200	communication	480	travel and transportation	740	health and welfare
210	records	490	land transport	750	sickness
220	food quest	500	water, air, and space transport	760	death
230	animal husbandry	510	living standards and routines	770	religious beliefs
240	agriculture	520	recreation	780	religious practices
250	food processing	530	art	790	ecclesiastical organization
260	food consumption	540	commercialized entertainment	800	numbers and measures
270	drink and drugs	550	naming, prestige & status mobility	810	sciences and humanities
280	leather, textiles, & fabrics	560	social stratification	820	ideas about nature and people
290	clothing	570	interpersonal relations	830	sex
300	adornment	580	marriage	840	reproduction
310	exploitative activities	590	family	850	infancy and childhood
320	processing of basic materials	600	kinship	860	socialization
330	building & construction	610	kin groups	870	education
340	structures	620	community	880	adolescence, adulthood, and old age
350	equipment & maintenance of buildings			890	gender roles and issues
360	settlements			900	texts
				910	archaeological analyses

HRAF의 OCM분류체계는 대부분의 분류코드가 주제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드 000, 100, 110, 120, 900, 910 등은 정보원, 연구방법, 텍스트, 분석법 등을 다루고 있으며 코드 130부터 890까지는 문화관련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3.2 UNESCO 문화지표

유네스코에서는 체계적인 문화통계 생산의

기준으로 1978년에 문화통계 작성 틀에 대한 연구(Preliminary study on the scope and coverage of a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를 하였고 이후 이 초안(draft)을 시작으로 여러 회의를 통해 문화지표는 조정되고 발전하여 문화통계의 확립을 이루었다. 그리고 1986년 발표된 문화통계 작성 틀(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FCS)도 그중의 하나다.

문화를 영역과 기능별로 나누고 이를 교차시켜서 개별 통계를 생산한다. 문화영역을 10가



지로 분류하고 기능은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영역은 코드 0부터 9를 활용하여 0은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1은 출판물·문학(printed material and literature), 2는 음악(music), 3은 공연예술(performing arts), 4는 회화·조형예술(pictorial and plastic arts), 5는 영화·사진(cinema and photography), 6은 라디오·텔레비전(radio and television), 7은 사회문화활동(socio-cultural activities), 8은 스포츠·게임(sports and game), 9는 자연·환경(nature and the environment) 등 10가지다. 기능은 창작·생산, 매개·분배, 수용·소비, 보존·등록, 참여 등 5가지다.

문화영역은 다시 하위영역으로 분류된다. 이때 하위항목 코드는 소수점과 숫자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0 문화유산은 0.1 역사적 기념물, 0.2

고고학 유산, 0.3 박물관, 0.4 기록보관유산, 0.5 기타 문화유산으로 분류된다. 다른 영역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위영역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2/3 오디오·시청각 음반, 5/6 비디오 항목을 두어 매체 발행이나 소비 등을 파악하고 있다. UNESCO의 FCS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UNESCO의 문화지표체계는 문화의 현상과 환경을 파악하여 문화정책을 입안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매체나 문화 환경 실태 조사를 위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지표는 문화의 주제를 담고 있기보다는 문화 시설이나 활동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항목이 많다. 따라서 문화자원 분류체계를 위한 주제 내용 파악에는 문화유산, 문학, 음악, 공연예술, 조형예술, 사회문화 활동, 자연과 도시환경의 영역에서 주제 관련 내용을 활용하고자 한다.

<표 5> UNESCO의 FCS 분류체계

영역	하위 항목	영역	하위 항목	
0 문화유산	0.1 역사적 기념물	4 조형예술	4.6 사진	
	0.2 고고학 유산		4.6.1 창조적-예술사진	
	0.3 박물관		4.6.2 기타사진	
	0.4 기록보관 유산		5 영화·사진	5.1 영화
	0.5 기타 문화유산			5.2 사진
1 출판물·문학	1.1 책·팸플릿	5/6	비디오	
	1.2 신문·정기간행물	6 라디오·텔레비전	6.1 라디오	
	1.3 도서관서비스		6.2 텔레비전	
2 음악	2.1 라이브 음악	7 사회문화활동	7.1 사회문화단체활동	
	2.2 음악 극장		7.2 사회문화시설	
3 공연예술	3.1 드라마 극장		7.3 사회문화생활	
	3.2 무용		7.3.1 개인생활	
	3.3 기타 공연예술		7.3.2 가족생활	
2/3	오디오·시청각 음반		7.3.3 공동체생활	
4 조형예술	4.1 회화		8 스포츠·게임	7.4 접합범주
	4.2 조각	9 자연·환경		9.1 자연환경
	4.3 그래픽 아트		9.2 도시환경	
	4.4 수공예			
	4.5 기타 시각예술			

### 3.3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콘텐츠목차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우리나라 전지역에서 소멸해가는 향토문화자료를 보존, 계승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정리 사업이 필요했고, 향토문화 자료를 발굴, 수집, 연구 분석을 통한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을 구축<sup>1)</sup> 하였다.

이 전자대전은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활용하여 검색하는 방법으로 자료에 접근한다. 서비스시스템 메뉴에는 콘텐츠목차(Knowledge classification)가 있다. 이 콘텐츠목차가 분류체계에 해당된다.

이 전자대전의 분류체계는 먼저 9개 영역의 대분류로 구분되고, 그 다음 9개의 각 대분류 영역은 영역별로 중분류로 구분지어 모두 28개의

항목으로 나타난다. 이어서 28개 항목의 중분류는 각 항목별로 구분지어 모두 161개의 항목으로 소분류된다.

대분류 영역의 내용은 삶의 터전(지리), 삶의 내력(역사), 삶의 자취(문화유산), 삶의 주체(성씨와 인물), 삶의 틀(정치·경제·사회), 삶의 내용1(종교), 삶의 내용2(문화와 교육), 삶의 방식(생활과 민속), 삶의 이야기(구비전승·언어·문학) 등 9개 영역이다. 이 9개의 영역 아래에 중분류, 소분류 등 단계적으로 구분되어진다. 이 콘텐츠목차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이 전자대전의 콘텐츠목차는 우리나라 전지역의 문화를 총괄하여 주제 내용을 반영하다 보니 지역 공통의 주제가 있는 주제가 선정되는 연역적 분류체계와 동시에 지역 특성이 반영된 항목을 추출하여 반영하는 귀납적 분류체계가

<표 6>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콘텐츠목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수)
삶의 터전 (지리)	동식물	3	삶의 내용1 (종교)	기독교	2
	인문지리	4		불교	4
	자연지리	2		신종교	
삶의 내력 (역사)	근현대	3	삶의 내용2 (문화와 교육)	유교	2
	전통시대	5		교육	8
삶의 자취 (문화유산)	기록유산	6		삶의 방식 (생활과 민속)	문화·예술
	무형유산	4	언론·출판		5
	유형유산	2	체육		3
삶의 주체 (성씨와 인물)	근현대인물	25	삶의 이야기 (구비전승·언어·문학)	민속	8
	성씨·세거지	4		생활	3
	전통시대인물	24	구비전승	4	
삶의 틀 (정치·경제·사회)	경제·산업	9	총계	28항목	161
	과학기술	4			
	사회·복지	10			
	정치·행정	6			

1)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개요. [online] [cited 2015. 2. 11.]  
 <<http://http://www.grandculture.net/about/overview.asp>>

만들어져서 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삶의 내력(역사)와 같은 영역은 주제가 아닌 시대별 구분이고, 삶의 주체(성씨와 인물) 영역은 인물의 시대별 활동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시설이나 현황을 파악하는 지표관련 내용이 분류체계에 들어있기도 한다.

이는 지역의 여러 문화원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종류나 주제, 형식 등이 다양하며, 이를 모두 포함하여 분류하다 보니 분류체계가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실물자료 배치를 위한 분류체계가 아닌 웹상에서 검색하기 위한 메뉴로 구성된 목차이기에 이용에는 무난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자원 분류체계를 위한 주제 내용 파악에는 시·공간, 인물의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영역을 활용하고자 한다.

### 3.4 민속아카이브 분류검색

국립민속박물관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일상생활 자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과학적으로 보존 처리를 한 후 민속자료 분류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민속아카이브'에 정리·축적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sup>2)</sup>

웹을 활용한 '민속아카이브'는 국내외 생활문화 관련 아카이브를 수집·조사·정리·DB화하여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및 세계의 민속 및

전통문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sup>3)</sup>

온라인에서 활용되는 민속아카이브의 분류 검색은 그 카테고리를 1차, 2차, 3차의 3단계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1차 분류는 대분류로 볼 수 있는 데, 다루는 주제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산업/생업, 교통/통신, 과학기술, 사회생활, 종교신앙, 문화예술, 군사, 보건의료, 기타 등 12개의 영역이다. 1차 분류의 각 주제영역은 다시 분류하여 2차 분류 항목 82개로 구분한다. 2차 분류의 82개 항목을 다시 세분류되어 3차 분류로 구분한다. 이 분류체계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에 제시된 코드기호는 웹의 분류검색에서는 표현되지 않는다. 이용자들이 웹에서 이미지나 영상자료를 이용할 때, 이 코드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코드는 실물 자료를 보존하는 수장고나 자료실에서는 자료의 정리 배열을 위한 용도로 필요하다.

민속아카이브의 분류검색 체계는 주제별로 '01 의생활'부터 '11 보건의료'까지 1차 분류를 하고 있고 '99 기타'를 두어 주제에 해당하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역을 두고 있다. 그리고 1차 분류의 각 영역을 2차 분류할 때, 각 영역마다 90코드를 부여해서 각 주제영역의 '관련도서' 항목을 배정하고 있다. 이는 주제가 아닌 매체유형을 배정하는 것으로 12개 주제 영역마다 도서만을 별도로 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영역의 관련도서 90코드는 조기성이 반영된 분류체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코드 '0411 관련도서'를 두고 있는데, 이는 오기의 잘못이라고

2) 국립민속박물관 소개마당. [online] [cited 2015. 2. 11.] <<http://www.nfm.go.kr/Introduce/mIntro.jsp>>

3) 민속아카이브 민속아카이브 소개. [online] [cited 2015. 2. 11.]

<[http://archive.nfm.go.kr/Archives/sub\\_introarchive\\_NEW.jsp?contents=info.jsp&top\\_idx=0](http://archive.nfm.go.kr/Archives/sub_introarchive_NEW.jsp?contents=info.jsp&top_idx=0)>

〈표 7〉 민속아카이브 분류검색 체계

1차 분류 (코드)	2차 분류(코드)	1차 분류	2차 분류	1차 분류	2차 분류
01 의생활	0101 관모	05 교통, 통신	0501 교통운송	09 문화예술	0901 문헌
	0102 의류		0502 마구		0902 음악
	0103 대, 구		0503 수레부속구		0903 서화
	0104 신발		0504 통신		0904 조형
	0105 장신구		0505 신호		0905 공예
	0106 관, 복합		0506 항로표지		0906 무용, 극
	0190 관련도서		0507 선박용구		0907 놀이
	0199 기타		0590 관련도서		0999 기타
02 식생활	0201 음식기	06 과학기술	0599 기타	10 군사	1001 근력무기
	0202 취사		0601 천문		1002 화약무기
	0203 가공		0602 지리		1003 장비
	0290 관련도서		0603 의료		1004 복식
	0299 기타		0604 인쇄		1005 표식제식
03 주생활	0301 건축물	07 사회생활	0605 인장	11 보건의료	1006 가치
	0302 건축부재		0606 판류		1007 문서, 서적
	0303 생활용품		0699 기타		1099 기타
	0399 기타		0701 의례생활		1101 의료기기
04 산업, 생업	0401 선사생활	08 종교신앙	0702 사회제도	99 기타	1102 약(약재)
	0402 농업		0703 기념		1103 의약도서
	0403 어업		0704 의전		1104 의료문서
	0404 임업		0705 사회운동		1199 기타
	0405 축산		0799 기타		9901 자료
	0406 양잠봉	0801 불교	9902 모형		
	0407 광업	0802 유교	9903 용도불명		
	0408 수렵	0803 민간신앙	9990 기타도서		
	0409 공업	0804 기독교	9999 분류기타		
	0410 상업	0899 기타			
0411 관련도서					
0499 기타					

본다. '0490 관련도서'로 정정해야 할 것이다.

주제영역은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분류체계를 구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3.5 분류체계 비교분석

앞에서 문화와 문화자원에 관련한 4개 기관의 분류체계가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

서는 아시아문화정보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제의 분류체계 방안을 위한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한다.

먼저, 문화자원의 유형(〈표 1〉 참조)과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문화자원 수집 방향(〈표 2〉 참조)을 준거삼아 4개 기관의 분류체계에서 영역, 대분류, 중분류, 1차분류, 2차분류의 주제 내용과 비교하고자 한다. 앞의 〈표 4〉부터 〈표 7〉까

지의 분류체계나 지표를 주제항목별로 추출해서 그 내용을 문화자원의 유형과 아시아문화정보원의 수집대상 문화자원과 비교해보면 <표 8>과 같다.

<표 8>과 같이, 아시아문화정보원의 수집대상 문화자원은 문화유형의 영역에서 문화적 영역에만 포함된다. 이는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문화자원 수집대상이 문화자원 유형에 비추어보면 지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향후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집대상 문화자원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한 분류체계의 구상이 필요하다.

4개 분류체계의 주제 항목을 문화자원 유형에 대비해 본 결과 HRAF와 향토문화전자대전 등의 주제 항목들은 문화자원 유형의 세 영역 모두를 수용하고 있으나, UNESCO 문화지표는 문화유형에서 사회적 영역을 배제하고 있고, 민속아카이브의 분류검색 체계는 문화유형에서 문화적 영역 중에 역사문화자원부문과 자연적 영역이 배제되어 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UNESCO 문화지표는 문화통계 지수 파악이 우선이다 보니 사회적

<표 8> 문화자원 범위유형과 분류체계 주제 비교

영역	문화자원 유형		HRAF	UNESCO	향토문화 전자대전	민속 아카이브
	세부영역	내용				
문화적 영역	역사문화 자원	유·무형 문화자원, 스토리	언어	문화유산 문학	문화유산 구비전승 문학	
	예술문화 자원	전시, 공연, 조형상징·예술, 공연활동(판소리, 연극 등)	예술 놀이 장식	음악 공연예술 조형예술	민속 문화예술	문화예술
	생활문화 자원	지역문화활동, 의·식·주, 이주· 정착	가족 사회활동 정부활동 법 의·식·주	사회활동	인문지리 정치행정 생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사회생활
사회적 영역	사회적 자원	경제활동자원, 축제 및 행사, 지역인프라자원, 이미지자원	농업 축산 노동 산업 경제활동		경제산업 과학기술	교통·통신 과학기술 산업·생업
자연적 영역	자연적 자원	자연·경관자원, 생태자원 환경(기후)자원	자연	자연환경	자연지리	
위의 3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제			군사기술 전쟁 건강·복지 종교신념 교육	스포츠 출판물 라디오·TV	동식물 사회·복지 종교 인물 교육 체육	종교신앙 군사 보건의료

\* 굵은 글자: 아시아문화정보원 수집대상 문화자원

영역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본다. 민속아카이브 분류검색 체계는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귀납분류 체계를 구성하다보니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적 자원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자원 유형에서 사회적 영역(자원)의 내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주제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는 주제들이 있다. 이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주제로는 군사기술, 전쟁, 건강, 복지, 종교, 교육, 체육, 보건의료 등이다.

그리고 문화자원 유형과 대비한 4개의 분류체계 내용에서 시·공간을 나타내는 분류 항목과 시설이나 현황의 실태 조사를 나타내는 분류 항목은 비교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문화자원 유형의 3영역과 4개의 분류체계의 대·중분류, 1·2차 분류의 주제를 비교분석한 결과로는, 문화적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류의 주제는 '유·무형의 문화유산, 예술, 의·식·주생활, 사회생활, 정치·행정활동' 등이고, 사회적 영역에서는 '경제산업활동, 교통·통신, 생산활동, 과학기술' 등이고, 자연적 영역에서는 '자연환경, 지리' 등이다. 그리고 사회적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주제는 '군사기술, 건강, 복지, 종교, 교육, 체육, 보건의료' 등이다. 이상의 주제들이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분류체계 구성에 필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 4.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분류체계(안)

아시아문화정보원의 수집대상인 문화자원의 유형과 주제의 틀이 구체화되고, 이러한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분류체계 구축을 위해, 앞에서

4개의 문화자원 관련 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해보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아시아문화정보원에서 관리하기에 적합한 새로운 문화자원 분류체계를 전개하고자 한다.

##### 4.1 분류체계의 전개원칙과 방법

###### 4.1.1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문화자원 형태

아시아문화정보원에서 수집대상의 문화자원은 크게 문화원형 영역과 공연·조형예술 영역의 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 문화원형은 문화의 원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화원형은 가공되지 않고 그대로 전승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스토리텔링으로 가공되어 대중들에게 문화콘텐츠로서 전달된다. 그러므로 문화원형 영역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문화원형이 수집대상이 되거나 이 문화원형을 담고 있는 도서류나 시청각 자료가 수집대상이 된다. 그리고 공연·조형예술 영역에서는 각 지역에서 문화원형을 전승하거나 가공하여 문화콘텐츠로 구성한 각종 유·무형의 예술을 담은 개체 즉 도서류, 시청각류, 사진, 회화 등이 수집대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문화자원 수집대상은 아시아 지역의 특정 문화원형이나 가공된 콘텐츠를 담은 매체라고 볼 수 있다. 이 매체는 주제가 있는 문화생활양식의 산물이고, 이 산물은 문화원형이든 가공된 문화콘텐츠이든 물리적 형태이거나 전자형태의 파일로 존재할 것이다.

###### 4.1.2 분류의 원칙과 기호 선정

일반적으로 분류란 유별화(grouping)의 절차를 의미한다. 즉 동일한 실체를 함께 모으고 동일하지 않은 실체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분류

의 기준에 따라서 자연적(natural) 분류와 인위적(artificial) 분류로 나누고 있는데, 전자는 자연현상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후자는 정리의 편의상 임의의 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문헌분류는 후자에 속한다(박종홍 1991, 43). 문헌분류 즉 정보자료의 분류는 자료의 실제적 적용과 유통, 관리를 기준으로 고안되기 마련이다. 또한 이용자의 탐색형태를 중심으로 작성되기도 한다.

아시아문화정보원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문화자원 분류체계 역시 문헌분류의 한 종류로 인위적 분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 목적과 아시아문화정보원의 역할에 맞게 수집된 아시아의 문화자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문화현상이 존재하는 기반인 지역적, 시대적, 물리적, 논리적 상황을 이해하고 문화자원을 지역, 시대, 주제의 3가지 범주로 분류체계 요소로 설정하고 이들을 담을 수 있는 다중분류체계를 원칙으로 한다.

모든 기호는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누구에게나 통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무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호라도 그것이 복잡하고 명료하지 못하여 그 기호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누구에게나 쉽게 식별되지 못하면 그 기호는 기호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정필모 1995, 5). 따라서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문화자원 분류기호도 간단하며 명료하고 누구에게나 통달성이 있고 배열순서상의 개념이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아시아문화정보원에서 활용하는 분류체계의 분류기호는 알파벳 문자와 아라비아 숫자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

거나 문자와 숫자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알파벳 문자와 아라비아 숫자 기호는 문헌분류에 있어서 분류기호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구비조건으로서 순서의 명확성, 조기성, 국제적 통용성 등을 갖추고 있고 알파벳 문자는 동등 항목의 수를 26개까지 전개할 수 있고, 숫자는 동등 항목의 수가 10개 미만일 때는 십진식, 10개를 넘어설 때는 백진식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호의 확장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문화자원 분류체계 전개에 있어서 그 기호체계는 문화자원의 지역, 시대, 내용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지역과 시대구분에 따른 기호 부여는 알파벳 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혼용하여 전개한다. 문화자원 주제구분에 따른 기호는 대분류는 십진식, 중·소분류는 백진식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전개하는 방식으로 총 5자리의 분류기호체계로 구성한다.

#### 4.1.3 기준설정과 전개순서

지금까지 문헌분류의 분류법에서 각각의 주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아마도 하나의 류가 성립될 수 있는 객관적인 타당한 기준을 설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정필모 1995, 8).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문화자원 분류를 위해서는 II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 활동의 증거물인 문화자원의 유형의 영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문화정보원에서 제시한 수집대상 범주에 들어가는 문화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연적 영역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III 장에서 살펴본 4개의 문화자원관련 분

류체계의 주제 항목들도 분류 전개하는데 고려해야 한다.

분류체계의 주제 전개순서는 <표 1>에 제시된 문화유형의 영역 순서에 따라 역사, 사회과학, 자연 순서대로 역사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 사회적 자원, 자연적 자원 순으로 주제를 전개한다.

#### 4.2 문화자원의 분류체계(안)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문화자원을 다중분류체계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체계를 지역구분과 시대구분, 주제구분별 등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 4.2.1 지역구분 분류체계

아시아문화정보원에서는 지역구분의 원칙은 UN에서 규정한 방식을 원용하고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을 대분류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시베

리아) 등 6개로 구분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속하는 동아시아부터 시작하여 동·서·남·북·중앙 순의 방위표시 순서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알파벳 문자 코드는 동아시아는 A, 동남아시아 E, 남아시아 S, 서아시아 W, 중앙아시아 C, 러시아와 시베리아 R 등의 기호로 표기한다. 각 국가의 분류는 중분류에서 구분하며, 기호는 인터넷 IP주소에서 국가명을 의미하는 문자 2자리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KR로 표기할 수 있다. 각 국가내의 지방 단위를 소분류로 설정할 경우에는 각 국가의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숫자를 활용하여 순서를 정하여 백진식 전개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서울특별시는 01이라는 기호로 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구분의 예를 들어보면,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문화자원으로 우리나라 서울특별시에서 생성된 문화자원을 수집하였다면 이 자원의 지역구분 분류기호는 'AKR01'로 표기된다는 것이다. 지역구분의 분류기호와 체계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자원 지역구분 분류체계(안)

대분류	기호	중분류	기호	소분류	기호
동아시아	A	대한민국	KR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	01 02 03 ⋮
		조선 중화인민공화국 몽골 일본 ⋮	KC CN MG JP ⋮		
동남아시아	E				
남아시아	S				
서아시아	W				
중앙아시아	C				
러시아(시베리아)	R				



4.2.2 시대구분 분류체계

아시아문화정보원에서는 시대구분의 원칙은 아시아 각 나라나 민족 역사의 다양성 때문에 어떤 준거를 가지고 준용하기 어렵다. 기호표시로 대분류에서는 시간을 의미하는 알파벳 문자 T와 한 자리 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한다. 단 B,C에 해당하는 자원은 숫자가 아닌 문자 B를 쓴다. 그리고 A.D 1년부터 999년까지는 숫자 0을, A.D 1000년부터 1999년까지는 숫자 1을, A.D 2000년부터 2999년까지는 숫자 2를 사용한다. 중분류에서는 문화자원 해당연도 끝에서 세 자리를 표기한다. 예를 들어 1972년도의 문화자원이라면 이 자원의 시대구분기호는 'T1972'가 된다. 990년의 문화자원이면 'T0900'의 기호를 갖는다. 서기 이전의 자료는 문자 기호를 TB로 하고 뒤에 세기를 기술한다. 예를 들어 B.C 12세기라면 기호번호는 'BT012'가 된다. 시대구분의 분류기호와 체계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4.2.3 주제구분 분류체계

아시아문화정보원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서 아시아문화정보원에서 수집대상의 문화자원은 <표 1>과 같이 문화적 영역의 내용에 대한 문화자원이다. 그런데 아시아문화정보원의 이 범주는 가시적 표현물의 유형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

고 문화체계간의 융복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그 영역을 <표 1>의 내용을 수용해서 확장하였다.

문화는 인간의 모든 생활양식과 상징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문화의 산물이 문화자원이라고 한다. <표 1>의 문화자원의 범위 유형을 모두 수용하고 <표 8>에서 추출된 문화자원의 주제 항목들을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분류체계의 주제로 활용한다. 주제구분의 분류체계와 기호를 전개해보면 <표 11>과 같다.

대분류의 주제는 <표 8>에서 추출한 16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 주제와 기호는 역사문화유산(A), 예술(B), 의생활(C), 식생활(D), 주생활(E), 정치·행정(F), 사회생활(G), 종교(H), 교육(K), 교통·통신(L), 경제산업·생업(M), 과학기술(N), 군사기술(P), 건강·보건의료(R), 민족·인물(S), 자연(T) 등이다.

대분류의 주제 배열 순서는 <표 1>에 제시된 문화자원 유형의 영역 순서에 따라 역사, 사회과학, 자연 순서에 따라 역사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 사회적 자원, 자연적 자원 순으로 배치한다.

대분류에 해당하는 기호는 알파벳 문자를 사용한다. 이 문자 중에 숫자의 형태와 유사하여 구별이 어려운 I, J, O, Q 등의 문자는 대분류 기호로 사용하지 않았다. 중분류에 해당하는 기

<표 10>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자원 시대구분 분류체계(안)

대분류	기호	중분류	기호
~ B.C 1	TB	해당세기 표기	
A.D 1 ~ A.D 999	T0	해당연도의 뒤 세 자리	001
A.D 1000 ~ A.D 1999	T1		⋮
A.D 2000 ~ A.D 2999	T2		999

〈표 11〉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자원 주제구분 분류체계(안)

대분류	기호	중분류	기호	대분류	기호	중분류	기호		
역사문화유산	A	유형유산	10	교육	K	유아교육	10		
		무형유산	20			소년교육	20		
		기록유산	30			성인교육	30		
		스토리	40			노인교육	40		
		문학	50						
		기타	90						
예술	B	전시	10	교통·통신	L	운송	10		
		음악	20			운송도구	20		
		공연	30			신호	30		
		조형	40			통신	40		
의생활	C	의류	10	경제산업·생업	M	농업	10		
		신발	20			어업	20		
		장신구	30			임업	30		
식생활	D	음식	10			축산	40		
		음식기	20			양잠봉	50		
		취사도구	30			광업	60		
						공업	70		
						상업	80		
주생활	E	주거건축	10			과학기술	N	천문	10
		생활건축	20					출판인쇄	20
		주거용품	30	기술	30				
정치·행정	F	정치활동	10	군사기술	P	무기	10		
		행정	20			장비	20		
						표기	30		
사회생활	G	의례생활	10	건강·보건 의료	R	건강	10		
		사회제도	20			보건의료	20		
		민속	30	민족·인물	S	민족	10		
		사회활동	40			성, 종친	20		
		가족	50			인물	30		
		사회복지	60						
종교	H	천주교	10	자연	T	기후	10		
		기독교	20			지리	20		
		불교	30			동식물	30		
		이슬람	40						
		유교	50						
		도교	60						
		민간신앙	70						

호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백진식으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기록유산에 해당되는 고문헌(소분류 기호 20일 경우)이 수집되어 분류된다면 이 기호는 'A3020'이다. 중분류의 강목에 해당하는 주제는 '10'부터 시작해서 '80'까지 배열하며 확장전개가 가능하다. 중분류에 배정된 기타 항목은 모두 '90'의 기호를 부여한다. 이는 조기성을 반영한다.

중분류에 해당하는 주제는 <표 8>의 비교분석에 의해 제시된 중분류의 주제 항목을 정리하여 유개념에 해당되는 대분류 16개 항목아래에 배치한다.

## 5. 결 론

이 연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내의 아시아문화정보원에 수집된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배열·보관할 수 있는 분류체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아시아문화정보원의 성격과 수집대상 문화자원을 파악하고, 문화자원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현재 문화자원과 관련한 4개의 분류체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HRAF 분류체계, UNESCO 문화지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콘텐츠목차체계, 민속아카이브의 분류검색체계 등 4개의 분류 주제 항목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문화자원 분류주제와 기호를 체계화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의 정의에 따라 문화자원의 범위유형은 문화적, 사회적, 자연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문화적 영역은 다시 역사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으로 구분한다. 아시아문화

정보원의 수집대상 문화자원은 문화적 영역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제한적인 측면의 문화자원 수집정책이므로 수집대상의 범위와 유형이 수정,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문화자원 분류체계는 지역, 시대, 주제의 3가지 범주로 분류체계 요소로 설정하고 다중분류체계를 원칙을 적용하였다.

셋째, 문화자원의 지역구분 체계는 동아시아는 A, 동남아시아 E, 남아시아 S, 서아시아 W, 중앙아시아 C, 러시아와 시베리아 R 등의 기호로 표기한다. 중분류 두자리의 문자, 소분류는 두자리의 백진식 숫자로 더 세분 전개한다.

넷째, 문화자원의 시대구분 체계는 기호표시로 대분류에서는 시간을 의미하는 알파벳 문자 T와 한 자리 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한다. 단 B.C에 해당하는 자원은 숫자가 아닌 문자 B를 쓴다. 그리고 A.D 1년부터 999년까지는 숫자 0을, A.D 1000년부터 1999년까지는 숫자 1을, A.D 2000년부터 2999년까지는 숫자 2를 사용한다. 중분류에서는 문화자원 해당연도 끝에서 세 자리를 표기한다.

다섯째, 대분류의 주제는 16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 주제와 기호는 역사문화유산(A), 예술(B), 의생활(C), 식생활(D), 주생활(E), 정치·행정(F), 사회생활(G), 종교(H), 교육(K), 교통·통신(L), 경제산업·생업(M), 과학기술(N), 군사기술(P), 건강·보건의료(R), 민족·인물(S), 자연(T) 등이다. 대분류의 주제 배열 순서는 문화자원 유형의 영역 순서에 따라 역사, 사회과학, 자연 순서에 따라 역사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 사회적 자원, 자연적 자원 순으로 배치한다. 중분류에 해당하는 코드 기호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두자리 숫자로 표기한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문화자원 분류체계(안)은 문화자원의 범위와 영역을 확정하여 주제 항목을 설정하고 기호도 부여해보는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아시아문화

정보원에서 실제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기초자료로 제시하는 실험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문화자원에 대한 분류체계의 세분류가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정현. 2008. 식물학의 학문분류와 문헌분류 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369-386.
- [2] 문지현. 2008. 『어린이도서 분류법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3]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2010. 『아시아문화정보원 업무매뉴얼』.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4] 박종홍. 1991. 『일반논리학』. 증보수정판. 서울: 박영사.
- [5] 여지숙 외. 2008. KDC 제4판 컴퓨터과학분야 전개의 개선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345-368.
- [6] 오재환. 2009. 『부산지역 문화자원 특성분석과 활용방안 연구』.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 [7] 이영진. 2008. 향토음식의 개념과 조사연구과제. 『실천민속학연구』, 11: 29-56.
- [8] 이창수. 2007. LCC 지도자료 분류의 특성과 KDC에서의 적용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161-181.
- [9] 정경란. 2013. 지역문화의 표준분류체계 연구: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1(3): 48-55.
- [10] 정연경, 최윤경. 2011. 한식분야의 듀이십진법 수정 전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29-49.
- [11] 정옥경, 이장익, 최정희. 2013. KDC 제6판 약학분야의 분류항목 전개 개선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281-299.
- [12] 정필모. 1995. 『국제백진분류법 연구: 인문학분야편』.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 [13] 조옥라. 2000. HRAF의 분류체계와 그 응용. 『제37회 국립민속박물관 학술발표회』, 2000년 8월 23일.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83-92.
- [14] 조현성. 2005. 『문화지표체계 개선: 2005 문화지표』.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향토자원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정책사업 추진방향』. 서울: 한국문

화관광연구원, 2011-16.

- [16] 황중환, 박진서. 2004.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촌발전전략.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5(2): 205-216.
- [17] Human Relations Area Files(HARF). [online] [cited 2015. 1. 2.]  
 <<http://www.bu.edu/library/guide/hraf/>>
- [18] Human Relations Area Files. Topics Covered (OCM Subjects). [online] [cited 2015. 1. 2.]  
 <<http://hraf.yale.edu/online-databases/ehraf-world-cultures/outline-of-cultural-materials/>>
- [19] UNESCO. 2009. *The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Montreal: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online] [cited 2015. 1. 3.]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9/001910/191061e.pdf>>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Jeong-Hyun. 2008. "A Comparative Study on the Knowledge Classification and Library Classification System of Botan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3): 369-386.
- [2] Moon, Ji-Hyun. 20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Library Classification*. Ph.D. diss.,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3]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fice for Hub City of Asian Culture. 2010. *Asian Culture Information Agency work manual*.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fice for Hub City of Asian Culture.
- [4] Park, Jong Hong. 1991. *General logics.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Seoul: Pakyoungsa.
- [5] Yeo, Ji-Suk et al. 2008. "The Improvements of the Subject Computer Science in the 4<sup>th</sup> Edition of KDC."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3): 345-368.
- [6] Oh, Jae Hwan. 2009.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alyses and Application Plans of Cultural Resources in Busan*. Busan: Busan Development Institute.
- [7] Lee, Young-Jin. 2008. "The study of concept in native local foods and research subject." *Journal of The Society of Practice Folkloristics*, 11: 29-56.
- [8] Lee, Changsoo. 2007. "An Analysis of Cartographic Materials Area in LCC and Some Suggestions on Their Applicable Principles into KDC."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3): 161-181.
- [9] Chung, Kyung Rhan. 2013. "A Study on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of Local Culture

- Focused on The Encyclopedia of Korean Local Cultur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3): 48-55.
- [10] Chung, Yeon-Kyoung and Choi, Yoon-Kyung. 2011. “A Study on Developing Modifications to the DDC for Korean Foo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1): 29-49.
- [11] Chung, Ok Kyung, Lee, Jangik and Choi, Jung Hee. 2013. “The Improvements of the Pharmacy Field in the 6<sup>th</sup> Edition of KDC.”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281-299.
- [12] Jeong, Pil Mo. 1995. *Analysis on the main classes of major general classifications and design of International Centesimal Classification*. Seoul: Chung-Ang University Press.
- [13] Cho, Ok Ra. 2000.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Application of the HRAF. In *Proceedings of the 37<sup>th</sup> Annual Meeting of the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0, 8, 23. Seoul: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83-92.
- [14] Cho, Hyeon Seong. 2005. *Improvement of cultural indicators: 2005 cultural indicators*. Seoul: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15]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11.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green tourism program policy on the basis of Korean local resources*. Seoul: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11-16.
- [16] Hwang, Jong-Hwan and Park, Jin-Seo. 2004. “A Study on the Rural Development Strategies Using the Native Culture Resour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5(2): 205-216.